

# 감 풍년의 역설...대봉값 폭락에 재배농가 '시름'

단감 생산량 11만2300t 전년보다 12% 증가...최대 31% 가격 하락 예상  
농협 광주공판장 지난달 10kg 대봉 1만4459원...지나해보다 42.9%↓  
운송비·포장비 등 제외하면 '마이너스'...수매제도 없어 농민 피해 클듯

올해 감 농사가 풍년을 이루면서 시세가 지난해보다 40% 넘게 폭락했다. 감은 식량 작물과 달리 정부 차원 수매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올가을 감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농협 광주공판장에 따르면 지난달 대봉 10kg 평균 도매가격은 1만445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만5303원)보다 42.9%(-1만844원) 하락했다. 지난달 대봉 값은 2019년(1만5621원)과 2020

년(2만6567원) 등 같은 달 기준으로 최근 4년 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대봉 100상자를 출하한다고 가정했을 때 산술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매출이 100만원 넘게 떨어지는 셈이다. 농업용 면세유와 비료비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판장까지 운반하는 비용 20만~30만원과 20만원 안팎 하는 상자 포장비 등을 고려하면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여건이다. 수확기 마지막 달인 12월에 시세가 다소 오른다

하더라도 올해는 2020년(2만4843원)과 2021년(2만2036원) 연평균 시세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대봉감 주산지 중 하나로 꼽히는 광양 진상농협 소속 농가들의 대봉감은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이달 들어 10kg 평균 1만3000~1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품질을 균일하게 출하하기 어려운 소작농 사이에서는 10kg당 평균 도매가격이 5000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게 책정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호남청과에서는 대봉 10kg 도매가격이 2000원에 책정됐고, 농협 광주공판장에서도 2500원~3300원에 가격이 매겨지기도 했다. 이달 초(3일) 농협 광주공판장에서 거래된 10kg 대봉 평균값은 8524원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에 속하는 35개입 평균 가격은 1만389원이었다.

이외 45개입은 7540원, 50개입은 5458원에 매겨졌다. 대봉감 최대 주산지 가운데 하나인 전남은 역대급 풍년이라 부를 정도로 올해 감이 주렁주렁 열린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된 11월 과일 관측 자료를 보면 올해 단감 생산량은 11만2300t으로, 전년(9만9900t)보다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는 개화기 냉해로 인해 수량이 잘 안 되었고 생육기에는 탄저병이 발생해 낙과 피해가 컸지만,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해 착과 수가 많았다.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전국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의 단감 반입량은 전년보다 27%나 증가했다. 지난달 서울 가락시장에서 단감 10kg 도매가격은 2만6100원으로, 전년(3만1600원)보다 17.4%

(5500원) 떨어졌다. 이달에는 2022년산 단감이 전년보다 6% 늘어난 3만4500t이 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하락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가락시장 단감 10kg 예상 도매가격은 2만5000원~2만9000원으로, 전년 평균가(3만6500원)보다 20.5%에서 많게는 31.5%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구영 농협 광주공판장 사장은 "자식 카우뚱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지난해보다 크게 내려간 가격에 감을 내놓는 모습이 안타깝지만, 올해 감 가격 폭락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다만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선별 작업을 제때 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기에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산·오른쪽 3번째)는 최근 광주시청에서 '농업인의 날' (11월11일)을 기념해 '가래떡 나눔 및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하며 오색 가래떡 1000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쌀 소비 늘리자"...농협 지역본부들, 소비촉진 운동 전개

전남농협, 아침 밥 먹기 운동  
농협 광주본부, 가래떡 나눔행사

갈수록 줄고 있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협 지역본부들이 '농업인의 날' (11월11일)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전남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aT 나주 본사에서 '아침밥 먹기 생활화 운동'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aT 임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박서홍 농협 전남본부장과 이창기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배옥병 aT 수급이사 등이 참석했다. 아침밥을 우리 쌀로 먹자는 운동 취지를 살리기

위해 농협 전남본부는 전남 쌀 대표 품종인 '새청무'로 만든 삼각김밥과 우유를 나눠줬다. 전남농업기술원이 청무와 새누리 품종의 장점을 살려 만든 새 품종 새청무는 전남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벼 품종 중 하나이다. 새청무 쌀은 지난해부터 전국 CU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과 삼각김밥 원료곡으로 쓰이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와 전남도, BGF리테일(CU편의점)이 쌀 생산·소비 업무협약을 맺은 성과이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우리 쌀 소비는 농업·농촌을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키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며 "전 국민 아침 밥먹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도 '농업인의 날'이었던 11일

광주시청에서 '가래떡 나눔 행사 및 쌀 소비촉진 운동'을 했다. 행사에는 고성신 광주본부장과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김석찬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김익찬 평동농협 조합장 등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지역민들에게 지역 쌀로 만든 오색 가래떡 1000개를 나눠줬다. 또 내년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며 기념품 등으로 광주 대표 쌀 '빛잔들 햇쌀'을 많이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마다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1인 1일당 양곡 소비량은 밥 두 공기도 되지 않았다.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1인 1일당 쌀 소비량은 148.3g으로, 전년 같은 달(154.5g)보다 4.0%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완숙 토마토 '땅감' 아시나요?

농협 광주본부 특판행사  
높은 당도·긴 보관기간에 인기

"땅감을 아시나요?"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11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연 금요 직거래장터에는 '땅감'이라는 농산물이 고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북광주농협 토마토작목회는 '땅감'이라 불리는 완숙 토마토를 금요 직거래장터에 선보이며 특판 행사를 벌였다. 땅감은 '땅에서 나는 감'의 줄임말로, 북광주농

협이 지난 2019년 완숙 토마토 상표를 출원했다. '북광주 땅감'은 자산 틀넛에서 연중 생산되고 있다. 당도가 높고 보관 기간이 길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북광주농협 소속 농가들은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를 도입해 생산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철저하게 식품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올해 농협 광주지역본부 금요 직거래장터는 오는 18일 김장 채소 직거래장터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겨울을 지나 내년 4월에 정비를 마치고 재개장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



## 사유림 경영지도 등 공유...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발표회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2년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발표회' (사진)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발표회'는 각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유림 경영지도와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전남지역 산림경영 전남 지도원들은 이날 산림

경영 발굴 사례와 추진 성과, 지도 우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 산림경영지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산림경영지도 사업 방향을 모색했다. 손철호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산림경영지도 사업은 직접 현장을 찾아 기술지도를 하고 임산물 생산·유통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며 "산림경영지도 우수조합 사례처럼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약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